

(제3편) 베트남의 축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

김정호*

1. 머리말

베트남의 축산업은 국가산업발전계획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축산업 분야는 2010~2019년 동안 매년 4% 내외의 성장을 나타냈으며, 현재 농업 비중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베트남 국민의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다.

오늘날 베트남 축산은 자급 중심의 소농 생산구조에서 점차 집약적·대규모 기업농장 형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양돈과 양계는 대규모 기업농장과 도축장 및 식품가공업체 간의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위생적인 현대식 도축장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품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축산업에서도 안전하고 질 좋은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방식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가금류, 젓소, 돼지, 꿀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VietGAP)가 운영되고 있다.

품질인증 축산물은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비인증 상품에 비해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고품질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외 시장에서 육류의 소비량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농가 위주의 축산업 구조, 축산물 생산의 전후방산업인 사료산업 및 신선유통업에 대한 투자 부족, 낙후한 도축 시설과 도축 기술, 가축질병 관리시스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돼지독감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발생하여 축산업의 발전이 혼미한 상황이다.

*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reikjh@naver.com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가축사육 동향과 유통구조 및 관련 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소절로 가축사육 및 축산물 유통구조, 사료곡물 수급, 최근의 축산정책 주요내용 등의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가축 사육 및 사료산업 동향¹⁾

2.1. 가축 사육 및 생산량의 추이

가축 사육두수의 동향을 보면, 물소(buffalo)는 감소 추세로 2005년 292만 두에서 2019년 239만 두로 감소하였다. 소는 2005년 554만 두에서 2009년 610만 두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3년 515만 두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 606만 두를 기록하였다. 돼지는 대체로 2,700만 두 내외로 사육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815만 두를 기록하였다. 가금류는 증가 추세이며 2005년 2억 2천만 수에서 2019년 4억 8천만 수로 증가하였다.

<표 1> 베트남의 연도별 가축 사육두수 추이(2005~2019년)

단위: 천 두, 백만 수(가금류)

연도	물소(버팔로)	소	돼지	가금류
2005	2,922	5,541	27,435	220
2006	2,921	6,511	26,855	215
2007	2,996	6,725	26,561	226
2008	2,898	6,338	26,702	248
2009	2,887	6,103	27,628	280
2010	2,877	5,808	27,373	301
2011	2,712	5,437	27,056	323
2012	2,628	5,194	26,494	309
2013	2,560	5,157	26,264	318
2014	2,521	5,234	26,761	328
2015	2,524	5,367	27,751	342
2016	2,519	5,497	29,075	362
2017	2,492	5,655	27,407	386
2018	2,425	5,803	28,152	409
2019*	2,388	6,060	19,616	481

주: 매년 10월 1일 기준. *2019년은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 원지은(2020)에서 재인용.

1) 이 절의 내용은 원지은(2020)과 응엔 만 끄영(2020)을 토대로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축종별 생산량은 2019년 기준으로 물소(생체 중량) 9만4천 톤, 소(생체 중량) 35만5천 톤, 돼지(생체 중량) 332만 톤, 가금류(도계 중량) 130만 톤 등이다. 그밖에 우유(원유) 9억 리터, 계란 133억 개, 벌꿀 2만2천 톤, 누에고치 1만1천 톤 등을 생산하였다.

〈표 2〉 베트남의 주요 가축 생산량 추이(2010~2018년)

구분	단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버팔로(생체 중량 기준)	천 톤	84	86	87	88	92	94
소(생체 중량 기준)		279	300	309	322	335	355
돼지(생체 중량 기준)		3,036	3,492	3,665	3,733	3,816	3,329
가금류(도계중량 기준)		615	908	962	1,032	1,098	1,302
우유(원유)	백만 리터	307	723	795	881	936	986
계란	백만 개	6,422	8,874	9,446	10,637	11,646	13,279
벌꿀	톤	11,944	15,478	16,530	18,755	20,415	21,847

자료: 베트남 통계청. 응옌 만 끄영(2020)에서 재인용.

2.2. 가축 사육의 지역 분포

가축사육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소는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237만 두(40.8%), 북부 중산간 지역 102만 두(17.6%), 중앙 고원 지역 77만 두(13.3%), 메콩 삼각주 지역 75만 두(12.9%), 홍강 삼각주 지역 50만 두(8.6%), 남동부 지역 40만 두(6.8%)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돼지는 홍강 삼각주 지역 716만 두(25.4%), 북부 중산간 지역 712만 두(25.3%),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515만 두(18.3%), 메콩 삼각주 지역 345만 두(12.3%), 남동부 지역 342만 두(12.1%), 중앙 고원 지역 184만 두(6.5%)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금류는 홍강 삼각주 지역 1억 276만 수(25.1%), 북부 중산간 지역 8,729만 수(21.3%),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8,407만 수(20.6%), 메콩 삼각주 지역 7,020만 수(17.2%), 남동부 지역 4,472만 수(10.9%), 중앙 고원 지역 1,994만 수(4.9%)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3> 베트남의 지역별 소 사육두수 추이(2010~2018년)

단위: 천 두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5,808	5,367	5,497	5,655	5,803
홍강 삼각주	652	497	493	491	500
북부 중산간 지역	994	943	958	990	1023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2,337	2,186	2,238	2,303	2,366
중앙 고원지역	695	686	718	755	771
남동부 지역	440	367	377	390	395
메콩강 삼각주	691	689	712	727	748

자료: 베트남 통계청. 응옌 만 쁘영(2020)에서 재인용.

<표 4> 베트남의 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추이(2010~2018년)

단위: 천 두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27,373	27,751	29,075	27,407	28,152
홍강 삼각주	7,301	7,061	7,414	7,086	7,158
북부 중산간 지역	6,602	6,842	7,176	6,787	7,120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5,553	5,368	5,421	4,978	5,153
중앙 고원지역	1,633	1,797	1,903	1,806	1,842
남동부 지역	2,485	3,094	3,359	3,245	3,423
메콩강 삼각주	3,799	3,589	3,803	3,505	3,456

자료: 베트남 통계청. 응옌 만 쁘영(202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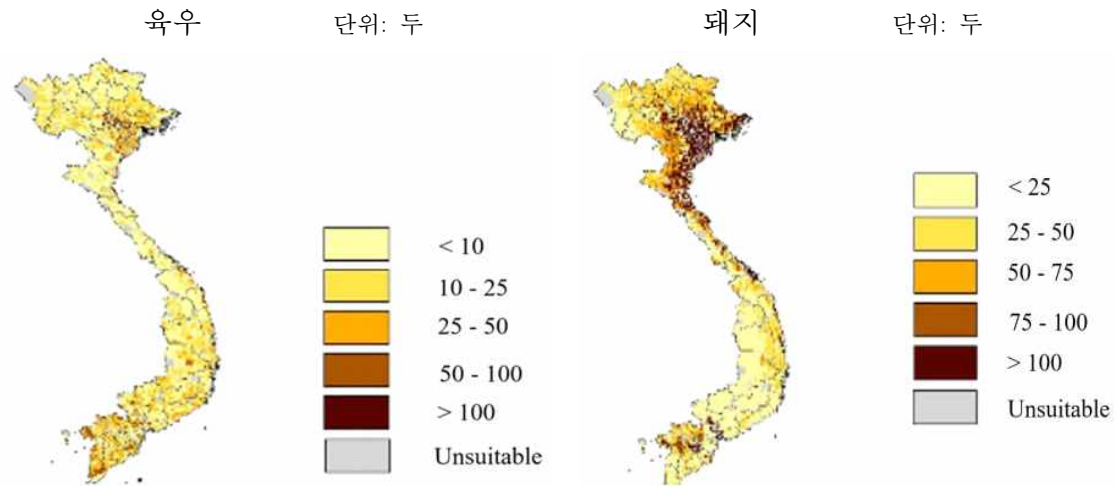
<표 5> 베트남의 지역별 가금류 사육두수 추이(2010~2018년)

단위: 천 수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300,498	341,906	361,721	385,457	408,970
홍강 삼각주	76,535	90,948	93,685	99,122	102,762
북부 중산간 지역	67,002	70,567	74,074	80,472	87,287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64,188	71,135	74,243	79,294	84,066
중앙 고원지역	11,591	16,490	17,192	18,639	19,939
남동부 지역	20,480	34,306	37,882	41,835	44,720
메콩강 삼각주	60,703	58,459	64,646	66,094	70,196

자료: 베트남 통계청. 응옌 만 쁘영(2020)에서 재인용.

〈그림 1〉 베트남의 가축사육 지역 분포



자료: 응엔 만 끄영(2020) 자료에서 캡처.

2.3. 축종별 사육 방식과 경영 형태

2.3.1. 육우

베트남의 육우산업은 발전 단계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이다. 특히 사료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소규모 사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육우의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소 1~2마리를 사육하는 소농으로 북부산간 및 중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전체 육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에서 얻어지는 볏짚을 주된 사료로 사용하는 전근대적인 사육 형태이다.

둘째는 소 2~10두 정도의 전문적인 비육 형태를 갖춘 농가로, 지역으로는 중앙고원 및 중부해안과 남부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들 농가에서는 어린 송아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후 성우를 시장에 출하하는 경영방식이다. 또한 사료는 그 지역에 생산한 아프리카 초지(elephant grass)나 콩과 식물(legumes)을 이용하거나 쌀겨 또는 카사바 가루 등을 사용한다.

셋째는 소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적 농장으로 전체 사육두수 비중으로 보면 1~2%에 불과하고, 주로 남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되는 육우는 식품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복합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육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치민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이용가능한 초지면적은 4만 5,000ha 수준으로 알려지며, 육우 1마리 당 1ha 면적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사육가능한 육우 두수는 약 4만 두에 해당한다. 또한 농가가 송아지를 입식하여 24개월 육성한 후의 생체 무게는 암소가 150kg이고, 수소가 170kg 정도로서 생산성도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2.3.2. 돼지

역사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돼지고기가 주된 육류 품목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생산 방식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이다. 베트남 인구의 3할에 해당하는 약 3천만 명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농가마다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돼지의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 다. 첫째로 위생시설이 없는 소규모 부업경영, 둘째는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갖춘 소규모 상업적 경영, 셋째는 철저하게 위생시설을 구비한 현대적인 대규모 경영 형태이다.

<표 6> 베트남의 돼지 사육규모별 두수 비중(2000~2015년)

구분	단위: %				
	1~4두	5~19두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2000년	65.0	28.0	4.0	1.0	2.0
2005	37.5	37.0	13.0	4.5	8.0
2015	25.0	35.0	17.0	6.0	17.0

자료: 베트남 통계청 농업센서스(2015). 응엔 만 쁘영(2020)에서 재인용.

돼지 사육농가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00두 미만의 사육 농가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두 이상의 대규모 농장은 17%에 불과하다. 돼지 총 두수의 70% 그리고 돼지고기 생산의 60%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돼지 사육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생산성이 낮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 수요에 충족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베트남 양돈의 국제적 지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돼지 사육두수는 1,960만 두로 세계 8위이고, 돈육 생산량은 333만 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주변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단연 세계 수준이다. 반면에 수출량은 1만 7천 톤으로 생산량의 8.6%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돼지 사육두수 1위는 중국 3억 1,600만 두, 2위 미국 7,865만 두, 3위 브라질 4,055만 두이고, 돈육 생산량은 1위 중국 4,348만 톤, 미국 1,254만 톤, 독일 523만 톤 등이다. 한편, 10위권 생산국 중에서 수출량 1위는 스페인 98만 톤, 2위 브라질 94만 톤, 3위 미국 72만 톤 등이다.

<표 7> 세계 돼지 생산국 순위(2019년)

순위	돼지		돈육		
	국명	사육두수 (두)	국명	생산량 (톤)	수출량 (톤)
1	중국	316,068,540	중국	43,481,227	45,045
2	미국	78,657,600	미국	12,542,660	721,869
3	브라질	40,556,892	독일	5,232,000	946,401
4	스페인	31,246,040	스페인	4,641,160	987,007
5	독일	26,053,400	브라질	4,125,728	29,608
6	러시아	23,726,560	러시아	3,936,829	41,284
7	미얀마	21,603,718	베트남	3,328,822	16,946
8	베트남	19,615,526	프랑스	2,200,350	398,514
9	멕시코	18,365,289	캐나다	2,175,284	178,251
10	캐나다	14,399,339	폴란드	1,988,840	281,570

자료 : FAO, FAOSTAT - Production, Livestock Primary, Meat pig, 2019.

2.3.3. 양계

베트남의 양계산업은 1970~1990년대에는 국가 소유의 국영농장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 민간 운영방식으로 바뀌면서 소·중규모의 경영 형태가 태동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현대적인 경영 방식으로 100% 외국자본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사업체인 Viet-Thai Company, CP Group, Proconco, Cargill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품종은 1990년 이전에는 쿠바로부터 수입한 Leghorn, Plymouth Rock, Hybro, BE 등의 품종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많은 종계가 수입되어 양계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농장이 닭고기 가공업체와 계열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산 규모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가 사육하는 닭은 거의 재래 품종(Ri, Ri Pha, Mia, Dong Tao, Ho, crossbred and color feather chicken breeds)으로 전체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가가 기르는 닭의 수가 증가하면서 1988년에 생산된 닭고기는 1,000톤에서 1998년도에는 17만 톤으로 170배나 증산되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총 가금류 수는 4억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78%(3억 마리)가 닭이고, 나머지 23%(9천만 마리)는 오리이다. 또한 닭 중에서 78%는 육계(broiler)이며 22%는 산란계(layer)이다.

양계는 양돈 다음으로 전체 축산물 생산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구의 약 80%, 그리고 농가 수로는 1,200만 호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수십 마리에서 몇 백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매우 영세 규모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양계산업은 농가의 축산소득 중 약 30%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의 상업적 양계산업은 1992년도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홍강삼각주 지역과 메콩삼각주의 동부 지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1만 수를 이상을 사육하는 생산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액은 약 2조 동(한화 약 1,000억 원)에 달하여,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빈곤 탈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인 통합농업시스템(Vuon-Ao-Chuong; VAC)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양계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계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6% 수준에 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약 4억 마리의 닭과 100만 톤의 닭고기 그리고 100억 개의 달걀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2.4. 사료산업 동향

베트남 주요 사료원료인 옥수수, 완두콩, 밀기울 수입은 베트남 전체 사료원료 수요의 55% 비중을 차지한다. 얼마 전까지 타피오카와 옥수수는 국내에서 충당 가능했지만, 국내 축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사료원료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타피오카는 바이오 연료로 가공해 수출됨에 따라 사료원료가 부족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사료가격이 빠르게 인상되는 추세이다. 인도에서 수입된 사료원료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곤충이 포함되어 반송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입국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국가로 전환하였는데, 곡물가격이 인도보다 높은데다 운송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원가 부담이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사료원료 중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콩깻묵, 생선가루, 고기가루 등을 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네랄, 비타민, 향료 등도 마찬가지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축, 축산물, 사료의 수출입 공급망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또 다시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베트남 세관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동물 사료 및 관련 물품의 수입액은 2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하여 42%나 감소하였다. 만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식품 및 외식시장 위축 시에 축산농가의 운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사료의 주된 원료인 옥수수는 재배면적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2010년 112만ha에서 2018년 104만ha로 감소하였다. 주 재배지역은 북부 중산간 지역 46만ha(43.9%), 중앙고원 지역 22만ha(20.7%),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19만ha(18.0%) 등이다.

<표 8> 베트남의 옥수수 재배면적 추이(2010~2018년)

단위: 천 ha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1,125.7	1,178.9	1,152.7	1,099.5	1,039.0
홍강 삼각주	97.6	91.3	89.8	87.5	78.1
북부 중산간 지역	460.6	518.9	509.5	490.1	455.9
북중 및 중앙 해안 지역	213.2	210.4	207.6	200.2	187.4
중앙고원 지역	236.8	241.3	235.3	216.4	215.3
남동부 지역	79.8	78.8	75.7	70.2	69.3
메콩강 삼각주	37.7	38.2	34.8	35.1	33.0

자료: 베트남 통계청. 이현근 외(2019)에서 재인용.

3. 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동향

3.1. 축산물의 유통 시장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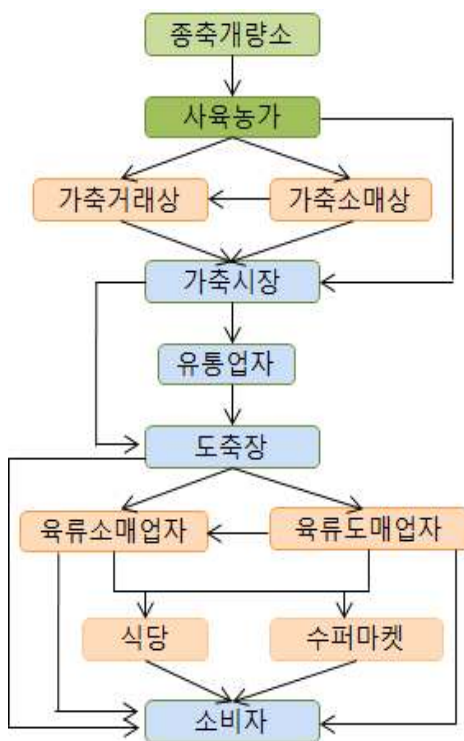
베트남의 축산물 유통구조는 매우 전근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생산농가에서 시장정보에 대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축산농가의 50%가 직접 시장에 출하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가 절대 부족하

2) 이 절의 내용은 응웬 만 꾸엩(2020)과 원지은(2020)의 자료를 인용 정리하였다.

여 생산조절이 농가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출하시기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산자단체가 없다는 것이 소농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가축의 생산단지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산지단계에서 유통수집 기능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합리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생축에 대한 시장교섭력(bargaining power)은 중간상인들이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의 생산농가는 그 마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소규모 생산농가는 도축시설이 멀거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가 도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위생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소고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정도만 수의사의 검역을 걸쳐 도살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 2〉 베트남의 가축 유통경로 및 가축시장 사진



자료: aT 자료(2019)를 기초로 저자 작성. 사진은 네이버 사진자료에서 캡처.

생돈의 출하과정을 보면, 대부분 생산농가는 소규모인 관계로 중간상인이 수집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수집상은 마을을 다니며 생돈을 수집하여 자가 도축 또는 시설이 갖추어진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도매 또는 소매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가 도축은 북부지방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자가 도축이 적고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유통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유통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으며, 품질 관리된 돼지고기의 유통량은 전체 물량의 단지 13%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도시에 사는 일부 소비자들만이 현대식 슈퍼마켓에서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소비자 스스로 동물성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품질확인서, 판매자의 명성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특히 육류의 재래시장 유통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많은 관계로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슈퍼마켓(food chain store)에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산 소고기보다 품질관리 정보가 있는 수입 소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최근에 현대적 대형 슈퍼마켓이나 체인소매점의 등장으로 육류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시장의 현대화로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육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베트남은 2007년에 WTO에 가입하고 현대적인 소매유통에 투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많은 외국기업이 유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ntral Group, Metro, Aeon Mall, 그리고 한국의 Lotte 및 CJ Group 등이 베트남 식품소매시장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2018년 현재 베트남에는 800개의 대형 슈퍼마켓과 150개의 쇼핑몰, 9,000개의 재래시장 그리고 220만개의 소매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인 호치민시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2009년에 87개였으나 2013년에는 185개 2017년 현재 800개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40%는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3.2. 축산물의 소비 동향

베트남의 식생활이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절대 식량이 부족한 빈국 중에 속하여 전통음식은 쌀과 허브(herb)와 채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육류는 생일이나 제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소비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육류 소비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여 3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정도로 증가한 풍요로운 식생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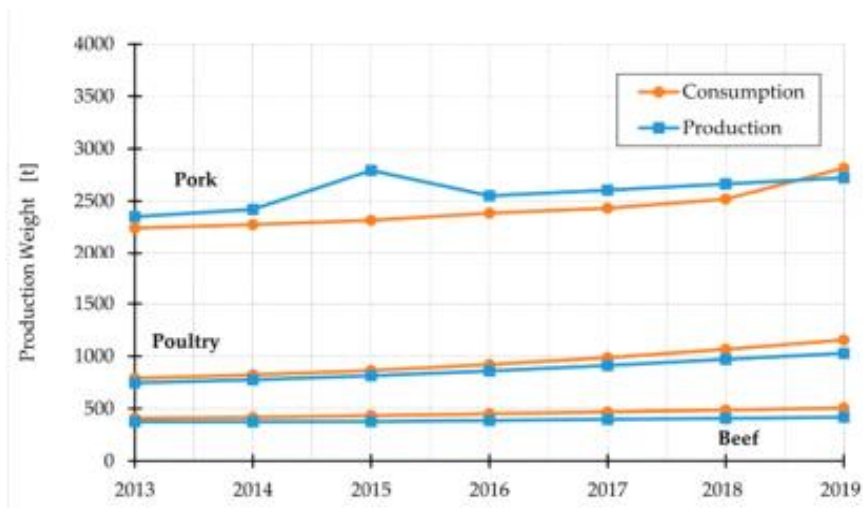
육류 중에서는 전통적 식생활로 인하여 단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닭고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타 육류 소비에 비하여 비중은 작으나 증가세는 대단히 빠르다. 최근에 부유층에서는 스테이크와 포도주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 월남 국수(Pho)에 들어가는 소고기와 닭고기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86년에 도이머이(Doi Moi)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의 생산과 소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커피와 쌀 생산증가와 더불어 축산부문도 크게 발전하여 그 성장 속도는 경작농업의 성장보다도 월등하게 앞지르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축산부문이 전체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르게 되었다.

소비자 가계의 식료품 총지출액에서 육류 소비에 대한 지출이 2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육류 소비는 꾸준하게 증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2013년도 베트남의 총 육류소비량은 3.6백만 톤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3.9백만 톤, 2019년도에는 4.5백만 톤에 달하고 있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베트남 일인당 육류소비량은 34.5kg에 달하고 있다(한국 55.9kg, 호주 94.8kg, EU 69.6kg, 미국 98.6kg). 베트남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육류는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상당 부분이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 베트남의 육류별 생산량과 소비량 추이(2013~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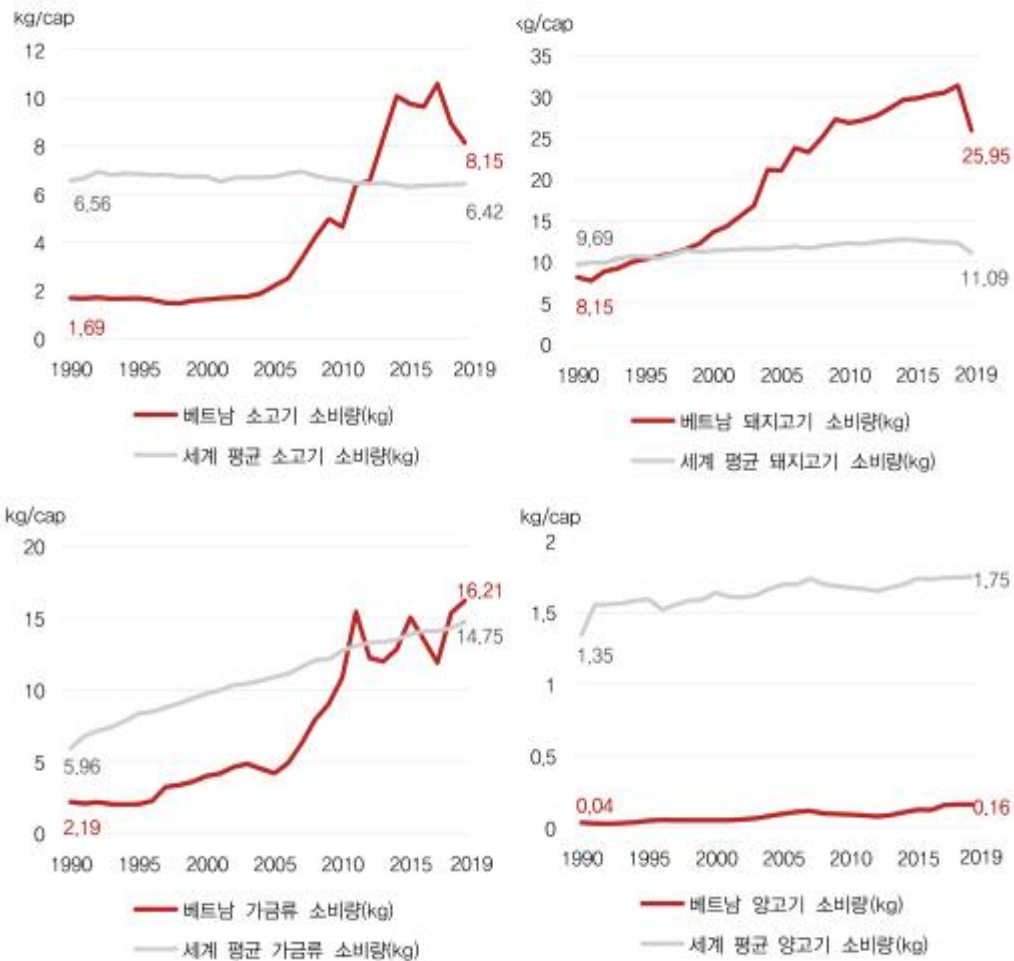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 웅웁 만 꾸영(2020)에서 재인용.

생활 수준의 향상과 육류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 소고기의 총소비

량은 2013년도 41만 톤에서 2019년도에는 51만 톤으로, 돼지고기의 총소비량은 2013년도 224만 톤에서 2018년도에는 282만 톤으로, 닭고기의 총소비량은 2013년도 79만 톤에서 2018년도에는 11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질병 확산, 육류 수급 문제 등으로 소비량 변화 추이가 비교적 유동적이거나, 1990년과 2019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쇠고기 소비량은 약 4.8배,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3.2배, 가금류 소비량은 약 7.4배, 양고기 소비량은 약 4배 성장하였다. 2019년 현재 베트남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소고기 8.15kg, 돼지고기 25.95kg, 가금류 16.21kg 등으로, 각각 세계 20위, 2위, 2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모두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 4> 베트남의 1인당 육류소비량 추이 국제 비교(1990~2019년)



자료: OECD 자료. 원지은(2020)에서 재인용.

베트남의 육류 소비 경향은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였다. 쇠고기 소비량이 총 육류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 성장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연평균 11%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 성장과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화 확산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외식의 빈도도 높아지고, 외식할 경우에 집에서 보다도 육류 소비가 한층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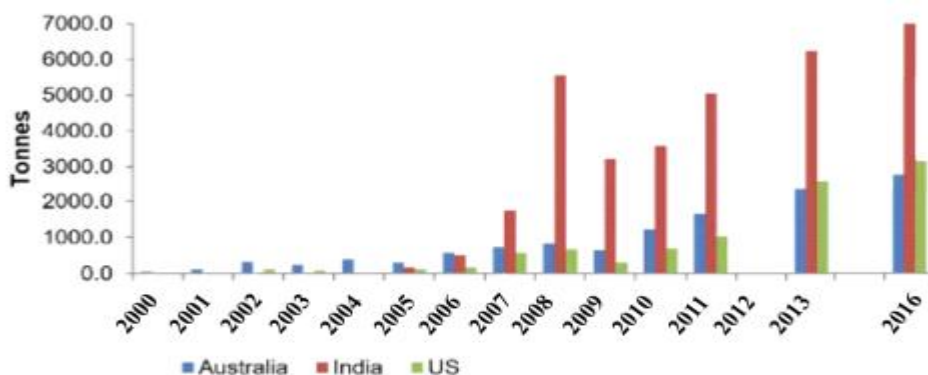
베트남의 육류 소비량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와 FAO의 농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개국에 포함된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 소비 성향이 높고 외식을 선호하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향후 식품유통의 현대화로 인해 국내외 육류 생산 및 유통량이 증가하리라는 예측에서 비롯한다.

3.3. 육류 수입 동향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육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 소고기 생산은 약 6% 증가하였으나, 수요는 30% 정도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의 육류 수입액은 최근에 들어 눈부실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류 수입액 가운데 소고기 수입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2015년도 육류 수입액은 2억 3,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은 2010년과 비교하면 143%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2017년도에는 소고기를 4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생우를 26만 두를 수입하였으며, 소고기 지육(뼈 포함) 4만 2천 톤을 수입하였다.

<그림 5> 베트남의 육류 수입국별 수입량 추이(2000~2016년)



자료: UN Comtrade(2014). 응웬 만 꾸영(2020)에서 재인용.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소고기 수입은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소고기 수입관세는 18%이므로, 수입업자들은 생축의 관세수입이 2%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생축을 수입하여 자국 내에서 도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2016년도에 TPP에 가입함으로써 TPP 회원국들(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간의 수입관세 철폐로 수입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도에 냉동형태의 소고기 수입액은 신선육형태의 소고기 수입보다도 11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냉동육 수입관세가 20%인데 반하여, 신선육 수입관세는 30%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의 FTA 확산에 따라 육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육류 수출의 시작으로 베트남의 육류 수입시장은 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들에게 그 경쟁력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에 맞춰 CPTPP 와 EVFTA의 기준을 앞두고 해외 육류 수출국은 그들의 시장을 선점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축산업계는 해외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축산업계는 정부가 고지한 위생 수준(특히, E.Coli, Salmonella에 관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정부는 위생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위생 수준을 통과하지 못한 냉동육류는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011~2017년 사이에 베트남의 국내 소고기 생산은 약 6% 상승했지만, 동 기간에 소고기 수요는 28%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입 육류가 국내산보다도 매우 낮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베트남 축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도매가격이 kg당 60,000~12,000동(VND)이고, 소매가격이 165,000~200,000동에 유통이 되는데 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은 kg당 250,000동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돼지고기는 수입산 가격은 kg당 27,000동인데 국내산 가격은 26,000동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품질 면에서 차이가 크다. 가격이나 품질 격차를 좁히는 것이 축산농가가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베트남의 국내 소고기 생산은 침체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 소득 증가 또는 외식산업의 번창으로 수요가 커짐에 따라 해외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며, 수입원은 호주, 미국, 인도 등이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생산업자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소고기 수입은 사료산업의 후진성과 기후 및 초지면적의 제한, 특히 육우 경영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당기간 동안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 최근의 축산정책 주요내용³⁾

4.1. 국가 축산업 발전 전략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08년 1월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축산발전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축산업의 규모화 달성, 내수 및 수출시장에 적합한 축산물 품질 및 공급량 충족, 축산물의 식품위생 안전 보장, 지역 특색 및 경쟁력을 살린 축산업 발전, 축산기업 및 도축장, 육류 가공공장의 환경 보호 및 오염방지시스템 마련 등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실천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생산액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함께, 축종별 목표 사육 마릿수 및 출하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0월에 “축산발전전략 2020”의 후속 대책으로 “축산발전전략 2021-2030”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축산업의 산업화,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이며, 세부 목표로는 국가 축산업 생산액 증대, 현대화된 도축시설 활용, 가공육 비중 확대, 무질병 생육환경 마련 등이 있다.

〈표 9〉 베트남 축산발전전략 2025-2030 주요 목표치

종류	단위	2025	2030
축산업 생산액	증가율 (%)	매년 4~5%	매년 3~4%
현대화 도축시설 처리물량 (소)		60%	70%
현대화 도축시설 처리물량 (가금류)		40%	30%
전체 육류생산량 중 소고기, 가금류 비중		25~30%	40~50%
성(district) 단위 무질병 가축사육지역	개소	10	20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원지은(2020)에서 재인용.

3) 이 절은 원지은(2020)과 한국국제협력단(2019) 등을 편집 정리하였다.

또한 정부는 해당 전략을 통해 2045년까지 베트남 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및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현대화·산업화를 달성하고, 초국경 동물감염병 관리에 있어 동남아시아 권역 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축산물 안전성 및 친환경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실천방안으로는 농지, 금융, 신용, 무역, 농촌지도 등의 분야에서의 축산농가 통합적 정책지원, 가축질병 관리 및 환경 보호 역량 강화, 과학기술 발전 및 국제협력 강화, 가축 생산성 향상 및 품종 개량, 동물 사료의 품질 개선 및 가격 인하, 축산물 도축 및 가공 물량 확대, 축산업 전후방산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가축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대규모 농장이 필요하며,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신용 정책을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배업의 가공공장은 약 5억 동이 투자가 필요하지만, 가공라인이 없는 도축장은 1조 8천억 동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회사가 가공공장을 건설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축산업, 특히 도축 및 가공을 위한 적절한 신용 및 세제 지원을 하려는 이유이다.

4.2. 가축질병 관리 전략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건강정보시스템(World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 WAH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베트남에서 주로 발생하여 문제시되는 가축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탄저병(Anthrax), 돼지열병(C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동물위생국(MARD-DAH)은 국가 수의 공중보건 환경 개선과 가축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베트남 수의서비스 국가관리 역량 강화 중장기계획 2011-202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가축질병 관리, 통제, 예방 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보장, 국가수의공중보건 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ASF의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0년 7월 부총리 명의의 “2020-2025 ASF 예방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국내 ASF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하여 500곳의 안전한 돼지 사육시설 마련, 50개의 안전한 가축 공급사슬 확장 및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유통 활성화, ASF 백신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가축질병 적시 진단, ASF 사전에 방조치 강화, 돼지고기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제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돼지사육, 질병 감지, 감염돼지 살처분, 생산품 판매 등 사육 전과정에서의 방역대책 마련, 축산농가의 ASF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옹호 활동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의 일환으로 베트남 내 ASF 백신연구소 2곳과 실험용 동물 사육시설 2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표 10> 베트남 수의서비스 국가관리 역량강화 중장기계획 2011-2020 주요 내용

프로그램 및 목표	내용
<p>1. 동물보건 법률문서 및 기술표준 향상 목표: 축산업의 국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 분야 법률문서 및 기술표준 체계 향상 달성 기한: 2012-2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법률 공포를 위한 법률개발 및 제출 - 국내 규정 및 해외기준·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국가관리 법률문서 시스템 검토, 수정, 보완, 완성 -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기준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축산시설 동물위생, 축산물 회수에 관한 기술적 규정, 동물 및 축산물의 운송, 교역, 수출입에 관한 기술적 규정 검토, 수정, 보완, 마련
<p>2. 가축질병관리, 동물검역, 도축관리, 식품안전, 동물용 의약품 관리 향상 목표: 위험한 가축질병, 동물보건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미생물, 화학제제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달성 기한: 2012-202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위험 가축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실시 - 동물검역기관의 검역 및 동물위생검사 역량 강화 -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효능 검사 및 감독 강화 - 동물성 식품의 생산, 예비처리, 가공, 운송 및 거래과정에서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생조건에 대한 엄격한 검사 및 감독
<p>3. 수의서비스분야 국가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및 향상 목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수의서비스 분야의 국가관리 역량 강화 및 향상 달성 기한: 2012-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건 분야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모델 연구 및 제안 - 수의서비스업무 담당기관 및 부처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의 보완 및 조정 - 축·수산업 관련 국가 관리기관 간의 협조체계 개발, 중앙수의기관과 지역수의기관 간의 협력, 동물보건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협력
<p>4. 수의서비스업무 담당기관 및 부처의 물적·기술적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목표: 향후 산업 및 국가적 통합에 따라 보다 선진화되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국가관리기관, 진단검사시스템, 검사 및 관리시스템의 물적·기술적 시설 건립 및 확충을 위한 투자 달성 기한: 2012-202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외래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건립 - 각 지역의 동물보건관리 진단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수의사무소(RAHO)의 물적·기술적 시설 개선, RAHO IV를 CSF, FMD OIE 표준 실험실로 만들기 위한 장비 추가제공, 제 1, 2 국립수의연구소, 제 1, 2 국립동물약품관리센터 물적·기술적 설비를 BSL2) 3등급으로 향상 - 주요 운송허브, 국경관문, 공항 및 항구 등에 계획대로 동물검역소 시스템 설치 - 중앙정부 산하 시도의 Sub-DAH, 지역 검역소의 물적·기술적 시설 투자 및 확충

자료: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원지은(2020)에서 재인용.

5. 맺음말

베트남의 축산업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모든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산 분야에서는 양돈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통 분야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통회사가 진입하고 현대화된 가공처리사업과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비 분야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국내 생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육류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 대상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베트남에 육류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호주와 미국이며, 한국은 지난 5년간 베트남에 가금류를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에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입장이므로, 향후 내수시장에서의 수입육 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국내시장에서 육류 공급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업의 생산 역량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아직도 소와 돼지는 영세농가의 부업적 경영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 사육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료산업도 일부 대기업농장을 주된 고객으로 하므로 연관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및 생산성 저하가 축산업에 당면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초에 창궐한 ASF에 대하여 초기방역이 실패함으로써 대규모의 살처분은 물론 축산물 수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폐사된 돼지를 매립하지 않고 가공한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사육농가의 가축위생에 대한 의식 및 정부의 가축질병 관리시스템 구축이 축산업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08년에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축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년)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그 후속 전략으로 작년에는 ‘축산발전전략 2021-2030’을 수립하여 축산업의 산업화·현대화와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45년까지 베트남 축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소비의 전과정에 현대화 및 산업화를 달성하고, 동물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참고문헌

- 원지은, 2020, “베트남 축산업 현황 및 가축질병 발생 동향과 대책”, 『KREI 세계농업 2020년 11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응옌 만 끄엥, 2020, 『AIDS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한 베트남 육류 수요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근 외, 2019,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해외농업시리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정보센터, 2019, 『베트남 축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9, 『베트남 농산물 시장조사』 (aT REPORT).
- FAO, FAOSTAT - Production, Livestock Primary, Meat pig, 2019.

관련 홈페이지

-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https://www.mard.gov.vn/>
- 베트남 통계청(GSO) <https://www.gso.gov.vn/>
- 베트남 뉴스 https://www.vinahanin.com/vietnam_news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